



제16기 군산시 농업인대학 졸업식 성료

‘제16기 군산시 농업인대학 졸업식’이 10일 농업인회관에서 졸업생과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농업인대학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 내 전문 농업인을 목표로 1년간 운영되는 중장기 교육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스마트농업CEO와 온라인마케팅 과정으로 지난 3월 입학식을 시작해 10월까지 총 25회 100여시간 과정으로 진행돼 3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특히, 스마트농업 CEO과정은 온실 내 데이터분석에 따른 환경제어를 할 수 있는 경영관리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 작물 재배의 적절한 환경조성은 물론 경영비 절감을 통해 농민의 수익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영일 군산시의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바쁜 농사일과 학업을 병행한 노고를 치하한다”며 “앞으로 미래농업을 이끌 전문 리더로 성장해 군산농업의 주역이 돼 달라”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군산시, 제16기 농업인대학 전문과정 졸업식 성황

제16기 군산시 농업인대학 졸업식이 10일 농업인회관에서 졸업생과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농업인대학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 내 전문농업인을 목표로 운영되는 중장기 교육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스마트농업 CEO와 온라인 마케팅 과정으로 지난 3월 입학식을 시작해 10월까지 총 25회 100여시간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스마트농업 CEO과정은 온실 내 데이터분석에 따른 환경제어를 할 수 있는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작물 재배의 적절한 환경조성은 물론, 경영비 절감을 통해 농업인의 수익 창출에 도움을 줬다.

온라인마케팅 과정은 블로그와 스마트스토어를 활용한 마케팅교육을 중심으로 이론교육은 물론 1:1 컨설팅을 통한 현장실습형 프로그램을 도입해 교육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농업인대학은 올해 32명의 졸업생을 포함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620명의 졸업생들을 배출하는 등 지역 농업인재 육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임준 시장은 “바쁜 농사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농업인대학 과정을 마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며 “앞으로 미래농업을 이끌어가는 전문 리더로 성장해 군산농업의 주역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